

구약 『아가』의 회기와 병행구문*

이성연** · 안정순***

< 목 차 >

- I. 서론
- II. 회기
- III. 병행구문
- IV. 결론

<Abstract>

A Study On the Recurrence and Parallelism of 『Aga』 in The Old Testament

Lee, Seong-Yeon · Ahn, Jeong-Sun

The study of recurrence and parallelism of 『Aga』 in the Old Testament helps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riter in detail.

Aside from 『Aga』, it also helps the understanding of other parts of the Bible concretely.

Recurrence is used to emphasized the central meaning of the text. It is used when the ideas like ‘ Solomon and Shulammite’s love, the bride’s beauty, and yearning’ need to be activated in the cognitive structure of the reader’s mind.

* 이 논문은 2003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교수

*** 조선대학교 대학원

The characterization of the recurrence of 『Aga』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first and second person pronoun,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love is emphasized. Second,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concrete noun, activation is achieved in cognitive space. Third, through the repetition of utterance, the exact meaning is brought into focus.

Parallelism is achieved through ‘requests’ and ‘subordinately constructed sentences’. The purpose of using parallelism is to make the eager wish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and the idea of their passionate love, remain in the cognitive space of the reader as equivalent structures.

I. 서론

구약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소녀의 화답 형식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부가되고 있는 구조를 지녔다. 남녀간의 애정이 전체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아가』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예표론적 해석에 의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의 상징이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성경 내용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서 문법의 기능은 문장을 가장 큰 단위로 설정하는 통사론적 틀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 해석은 최초의 발신자와 최초의 수신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된다. 따라서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이성연 2002).

Beaugrand & Dressler(1981)는 텍스트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데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 즉 일곱 가지 텍스트성¹⁾을 만족시키는 통화성 발화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일곱 가지 텍스트성 중에서 응결성은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가 응결성의 장치인 ‘회기, 대용형, 생략, 접속표현, 환언, 병행구문’ 등을 통해 어떤 인지적 효과나 맥락 효과를 얻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인간의 두뇌 용량은 제한적이어서 정보량을 모두 저장할 수는 없다. 정보처리의 인지적 수단들이 분포되어 있는 작업 기억 속에서는 잠정적으로 구조화된 자료들만 비교적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이미 사용된 구조와 패턴을 재수용하여 정보량을 수정, 압축함으로써 수용자의 저장을 활성화시켜 텍스트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고인숙 1998).

이 논문에서는 『아가』에 나타난 응결성 중에서 회기와 병행구문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²⁾ 회기와 병행구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문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반복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가 『아가』 텍스트의 수용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해석은 특별한 필요를 가진 특수한 연구 분야에 속하지만 그 목적이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텍스트 언어학적인 접근 방법은 텍스트 수용자들에게 『아가』에 담겨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이해와 수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가』의 하위 텍스트 구성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³⁾

1. [T₁]제목(1:1)

[T₁₋₁] 제목

2. [T₂]사랑의 노래(1:2~2:7)

1) 응결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정보성(informative)

2) 텍스트 인유(text allusion)인 상호텍스트성은 제외한다. 성경의 특성상 성경 외의 다른 텍스트 인용 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약호 T는 text의 첫머리 글자임.

- [T₂₋₁] 솔람미 소녀(1:2~4上) [T₂₋₂] 예루살렘 딸들(1:4下)
 [T₂₋₃] 솔람미 소녀(1:5~7) [T₂₋₄] 예루살렘 딸들(1:8)
 [T₂₋₅] 솔로몬(1:9~10) [T₂₋₆] 예루살렘 딸들(1:11)
 [T₂₋₇] 솔람미 소녀(1:12~14) [T₂₋₈] 솔로몬(1:15)
 [T₂₋₉] 솔람미 소녀(1:16~2:1) [T₂₋₁₀] 솔로몬(2:2)
 [T₂₋₁₁] 솔람미 소녀(2:3~7)
3. [T₃] 청혼과 화답의 노래(2:8~3:5)
 [T₃₋₁]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2:7)
 [T₃₋₂] 솔로몬의 청혼(2:8~14) [T₃₋₃] 함께(2:15)
 [T₃₋₄] 솔람미 소녀(2:16~3:5)
4. [T₄] 결혼 예식과 첫날밤(3:6~5:1)
 [T₄₋₁] 결혼 예식의 행렬(3:6~11)
 [T₄₋₂] 솔로몬이 신부에게(4:1~15)
 [T₄₋₃] 신부가 솔로몬에게(4:16) [T₄₋₄] 솔로몬이 신부에게(5:1)
5. [T₅] 신혼이 끝남(5:2~6:14)
 [T₅₋₁] 아내가 예루살렘 딸들에게(5:2~8)
 [T₅₋₂] 예루살렘 딸들이 아내에게(5:9)
 [T₅₋₃] 아내가 예루살렘 딸들에게(5:1~16)
 [T₅₋₄] 예루살렘 딸들이 아내에게(6:1)
 [T₅₋₅] 아내가 예루살렘 딸들에게(6:2~3)
 [T₅₋₆] 남편이 아내에게(6:4~10) [T₅₋₇] 아내의 독백(6:11~12)
 [T₅₋₈]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내에게(6:13)
 [T₅₋₉] 남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6:14)
6. [T₆] 갇어지는 결혼생활(7:1~8:4)
 [T₆₋₁] 남편이 아내에게(7:1~9上)
 [T₆₋₂] 아내가 남편에게(7:9下~8:3)
 [T₆₋₃] 아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8:4)
7. [T₇] 사랑의 성숙(8:5~14)

- [T₇₋₁] 솔로몬의 회상(8:1~5) [T₇₋₂] 아내가 남편에게(8:6~7)
 [T₇₋₃] 아내의 남자 형제들(8:8~9)
 [T₇₋₄] 아내가 모든 사람에게(8:10~12)
 [T₇₋₅] 남편이 아내에게(8:13) [T₇₋₆] 아내가 남편에게(8:14)

II. 회기

회기(recurrence)는 언어 요소들의 직접적인 반복을 말한다. 즉 같은 텍스트 안에서 먼저 사용된 언어 표현⁴⁾을 다시 사용하는 기법이다. 회기법은 다음과 같은 필요에 의해 사용된다.

첫째, 발화 현장에서 말을 계획하는 시간이 짧고 표층 텍스트가 순식간에 사라져 재 언급이 필요할 때 일어난다.

둘째, 두드러지게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고 재확인하거나, 자기 견해와 모순되는 발화체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셋째, 어떤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넷째, 화제와 무관한 방해를 받을 때 이를 극복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욕구에 의해 사용된다.

회기법에서 반복 표현은 텍스트가 구성하는 세계 안에서 계속 동일한 존재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명백한 연속성을 통해 텍스트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이석규 2001).

회기법 사용의 단점은 회기가 일어나면 정보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⁵⁾ 새로운 정보를 바라는 텍스트 수용자에게 앞서 처리했던 발화체가 다시 제공되면 이미 구정보가 되어 흥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4) 구성 요소나 패턴을 말하며 발화체라고도 한다.

5) 다음 시는 응결성 면에서 정보성이 매우 낮은 텍스트가 된다.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김수영 ‘눈’에서-

(이성연 2002).

그러면 『아가』에 두드러지게 사용된 회기 기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T₂₋₇】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a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1:12). b나의 사랑하는 자는 c내 품 가운데 몰약 향냥이요(1:13). d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1:14).
- (2)【T₂₋₁₁】 남자들 중에 a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b내 입에 달았구나(2:3).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c내 위에 기로구나(2:4). 너희는 건포도로 d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2:5).
- (3)【T₃₋₂】 a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2:8). b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2:9). c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d나의 사랑 e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2:10).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f나의 사랑 g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2:13)....
- (4)【T₄₋₂】 ...a나의 누이 b나의 신부야 네가 c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d내 마음을 빼앗았구나(4:9). e나의 누이 f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4:10). g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h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4:11). i나의 누이, j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4:12)....
- (5)【T₄₋₄】 a나의 누이, b나의 신부야 내가 c내 동산에 들어와서 d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e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f내 포도주와 g내 젖을 마셨으니 h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i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5:1).
- (6)【T₅₋₁】 ①a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②a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 이르기를 ②b나의 누이, ②c나의 사랑, ②d

나의 비둘기, ②e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②f내 머리에는 이슬이, ②g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5:2). ①b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①c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5:3) ②h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때 ②i내 마음이 동하여서(5:4) 일어나서 ②j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②k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②l내 손가락에서 문빋장에 듣는구나(5:5). ①d내가 ②m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리갔네. 그가 말할 때에 ②n내 혼이 나갔구나 ①e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5:6). 성 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③a나를 만나 때 ③b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②o나의 웃웃을 벗겨 취하였구나(5:7).

- (7)[T₂₋₉]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a우리의 침상은 푸르고(1:16) b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요 잣나무 석가래로구나(1:17).…
- (8)[T₇₋₃] ①a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②a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①b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8:8)? ②b그가 성벽일진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②c그가 문일진대 ①c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8:9).
- (9)[T₂₋₂] ①a우리가 ②a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①b우리가 ②b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②c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1:4下).
- (10)[T₂₋₁]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a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1:2). b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c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1:3).…
- (11)[T₂₋₅]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1:9). a네 두 뺨 땀은 머리털로, b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1:10).
- (12)[T₃₋₂]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a네 얼굴을 보게 하라 b네 소리를 듣게 하라 c네 소리는 부드럽고 d네 얼굴은 아름답구나…(2:14)
- (13)[T₄₋₂]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a네 눈이 비둘기 같고 b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4:1). c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4:2). d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e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f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4:3). g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4:4) h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4:5).

위의 (1)~(13)은 1, 2인칭 대명사의 어휘 회기를 통해 시적 화자의 사랑의 대상에 대한 열정을 텍스트 수용자에게 강조·재확인하여 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데 (1)~(6)은 1인칭 대명사 ‘나’를, (7)~(8①)은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를 회기하고 있다. 그리고 (9)~(14①)는 2인칭 대명사 ‘너’를, (8②)는 3인칭 대명사 ‘그’를 회기하고 있다.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모두가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1, 2인칭 대명사의 회기 사용 빈도수가 높다. 이것은 『아가』의 주된 내용이 솔로몬과 솔람미 소녀가 사랑을 주고받는 화답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와 ‘너’를 재 언급함으로써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의 주체와 대상을 강조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며 동시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애굽기 20:3~5)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아 너에게 신의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호세아 2:19)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이사야 43:1)

이처럼 ‘나는 너의’, ‘내가 너를’, ‘너는 나의’ 등의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 표현, 즉 주체와 객체 대명사의 사용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난

다. 솔로몬 시대에 자주 읽었던 모세 오경에서는 한층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의 개념이며, 진정한 사랑은 질투를 수반한다. ‘너는 내 것이라’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의 구절이 이를 잘 드러낸다. 이러한 사랑의 가치관이 솔로몬과 술람미 소녀의 사랑의 노래에서도 주체인 ‘나’와 ‘너’의 회기 기법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위의 (1)[T₂₋₇]에서는 a에서 이미 주어진 정보인 전술언급인 ‘나’를 b~d 까지 다시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의 어휘 회기는 술람미 소녀가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애정을 상대적으로 최대화하려는 의도이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런 거리낌없이 친밀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신의 지극한 행복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를 반복함으로써 오직 ‘자신’만이 사랑의 대상을 독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면서, 부부는 서로가 오직 자신만이 상대의 육체를 소유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주어진 구정보의 반복은 텍스트 수용자에게 흥미의 집중을 떨어뜨릴 수 있고, 반복으로 인한 경제성의 저하 때문에 ‘d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를 생략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랑의 정도가 약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2)[T₂₋₁₁]에서는 a~d의 ‘나’는 속격조사와 결합되었지만 피수식어는 다르다. a는 솔로몬이고 b~d는 [-유정물]들로서 술람미 연인의 소유물이거나 점유물인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이 그 소유와 점유의 대상을 한층 가치있고 빛나게 해준다는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과나무는 맛과 향 때문에 과실나무의 왕으로 여겨졌다. 솔로몬의 사랑과 보호를 사과나무의 맛과 향기에 비유한 것이다.

(3)[T₃₋₂]와 (13)[T₄₋₂]에서도 ‘나’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여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3)[T₃₋₂]는 솔로몬을 사랑하는 주체인 ‘나’를 7회 회기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b와 c의 ‘나의 사랑하는 자’는 텍스트 수

용자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대응형 ‘그’로 바꾸면 경제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회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진술하는 것은 연인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의 표현일 것이다.

(13)에서 ‘나’의 사랑의 대상은 솔람미 소녀이다. 주어진 정보인 전술 언급 a와 c 때문에 b와 d는 텍스트 수용자에게 인지 가능한 옛 정보가 되었다. 그러나 회기 기법을 택한 것은 사랑의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4)[T₄₋₂]에서는 ‘나’를 9회, (6)[T₅₋₁]에서는 ‘나’를 15회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7)~(9a,b)에서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를 반복하고 있다. (7)[T₂₋₉]②와 (8)[T₇₋₃]①c, 그리고 (9)[T₂₋₂]①b는 옛 정보이므로 생략이 가능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연합 관계를 강조한 회기 기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다음에 (9②a-c)~(14①)는 2인칭 대명사 ‘너’를 회기하여 사랑의 대상이 솔로몬에게 행복의 근원이며 소중한 존재인 것을 강조·재확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인들이 남녀간의 사랑을 ‘신에게 헌신하는 과정이 남녀 사이에 투영된 것’으로 이해한다. 사랑과 헌신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2인칭이고 현실적인 사랑의 대상인 이성도 2인칭이므로 심리적으로 일치시켜 이해하여 회기함으로써 ‘너’의 의미는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 공간에 그 의미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다.

(10)[T₂₋₁]b와 c, (11)[T₂₋₁]b는 이미 옛 정보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안정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1)b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T₃₋₂]에서는 ‘너(네)’가 4회 반복된다. 주어진 정보인 전술 언급 a 때문에 b~d 텍스트 수용자에게 인지 가능한 구정보가 되었다. 솔람미 소녀를 “나의 비둘기야”로 부르는 비유적 호칭어를 전술 언급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a는 생략이 가능하고, d도 ‘네’가 여러 번 회기 되었으므로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생략 대신 회기 기법을 택한 이

유는 텍스트 생산자가 ‘너’를 강조함으로써 술람미 소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또 (13)[T₄₋₂]에서는 ‘너(네)’가 8회 반복되었다. [T₄₋₂]가 다섯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동일 문장 내에서 ‘너’(b, e, f)의 회기는 피하는 것이 텍스트 수용자에게 구정보의 반복이 가져오는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구상명사 회기를 통해 텍스트 수용자 인지 공간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아가』텍스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5)[T₄₋₃] …나의 신부야 너는 ①a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①b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4:8)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②a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②b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4:16)
- (16)[T₅₋₁]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a물약이 내 손에서 b물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빋장에 듣는구나…(5:5)
- (17)[T₆₋₁] …네 입은 좋은 a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b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7:9)

위의 (15)~(17)은 모두 구상명사를 회기함으로써 텍스트 전달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을 텍스트 수용자의 기억 속에 오래 갈무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5)[T₄₋₃]의 ①b는 다음절어의 회기이므로 경제성도 떨어진다. 대용어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것이다. 그러나 회기 기법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술람미 소녀가 살고 있는 레바논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 즉 사랑이 시작된 추억의 장소이다. ‘사랑이 시작된 공간’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b는 단음절어이지만 반복하는 대신에 대용형 ‘거기’나 ‘그곳’으로 환치했다면 텍스트 응결성의 기능을 더 높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랑의 기쁨을 나누었던 ‘장소’를 회기함으로써 텍스트 수용자에게 아름다운 배경의 연상을 통해 사랑을 더욱 미화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16)[T₅₋₁]에서는 a과 b와의 차이점은 ‘몰약→몰약의 즙, 손→손가락’으로 지시물의 외연이 축소되어 의미의 초점이 선명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a만으로도 충분하지만 b의 회기를 택한 것은 상황 묘사의 구체화를 통한 표현의 효과를 얻기 위함일 것이다.

(17)[T₆₋₁]에서 b는 대용형(‘그것’)을 택하지 않은 것은 포도주가 사랑의 즐거움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주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는, 발화회기⁶⁾를 통해 의미 강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아가』텍스트들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8)[T₂₋₇] …a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1:13). b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1:14).

(19)[T₃₋₂] …a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2:10).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2:11)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2:12).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b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2:13).

(20)[T₃₋₄]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3:1).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a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나 큰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3:2). 성중의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b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3:3)

(21)[T₄₋₁] …a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4:9). b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4:10).

(22)[T₅₋₇] …a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b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6:13)

6) 회기에는 ‘어휘 회기’와 ‘발화 회기’가 있다. 전자는 단어의 반복을, 후자는 ‘구, 절, 문’의 반복을 말한다(이석규 2003).

위의 (18)~(23)은 ‘발화 회기’ 기법을 택한 예들이다. 이러한 ‘발화 회기’의 사용은 강조하려는 내용을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 공간에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해준다.

(18)[T₂₋₇]은 b를 생략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이로구나”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랑이 ‘사랑하는 대상’ 즉 ‘신부’를 부각시켜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반복하였다. 그러나 텍스트 수용자에게는 호흡이 긴 발화의 회기 때문에 오히려 텍스트 생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사랑’의 열정이 반감된 채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T₃₋₂]의 ①a, b, c는 회기법을 사용하여 사랑의 대상인 연인에 대한 애정의 토로를 부각시켜서 그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b와 c를 3인칭대명사로 바꾸어 ‘그는’과 ‘그가’로 표현한다면 시적인 형식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의 ②a, b 그리고 (20)[T₃₋₄]의 a, b도 발화의 반복을 통하여 사랑의 깊이와 절실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T₃₋₂]의 b는 생략하고 [T₃₋₄]의 b는 ‘그녀’로 대치했다면 좋을 것이다.

(21)[T₄₋₁]에서도 (18)[T₂₋₇]처럼 신랑이 ‘사랑하는 대상’인 ‘신부’를 부각시켜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강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옛 정보가 되어버린 b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를 생략하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후행 문장과의 긴밀성으로 인해 오히려 텍스트 수용자에게 의미 전달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22)[T₅₋₇] ‘돌아오고 돌아오라’의 발화를 회기 시키는 것도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으로서, 신랑의 품을 떠나지 말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라는 ‘권면의 간곡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b를 회기 시키지 않더라도

본질적인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아가』에서는 회기법 사용의 필요성 네 가지 중에서 첫째 번의 필요성 때문에 주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회기 기법을 사용하여 텍스트의 안정성을 높이며 중심 의미를 강조하거나 재확인함으로써 텍스트 수용자의 기억 속에 오래 갈무리시켜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Ⅲ. 병행구문

환언이 동일한 의미 내용을 다른 표층적 표현 형식에 실어 반복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병행구문(parallelism)은 다른 의미 내용을 동일한 표층적 표현 형식에 담아서 반복하는 장치이다. 즉 같은 언어 형식에 새로운 구성 요소를 넣어 다시 사용하는 기법인 것이다. 회기법이 갖는 정보성 감소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된다. 『아가』텍스트에서 사용하는 병행구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23)[T₂₋₉] … a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요 잣나무 석가래로구나(1:17). b나의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2:1).
- (24)[T₃₋₂]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①a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2:10).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2:11)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2:12).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b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2:13).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②a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b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2:14).
- (25)[T₄₋₂]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①a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4:1).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

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4:2). ①b네 입술은 홍색실 갈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갈구나(4:3). ①c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갈고 (4:4)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갈구나(4:5). …②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4:11). ③a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4:12). …③b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4:15).

- (26)[T₆₋₁] …①a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갈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7:2). ①b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갈고(7:3)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①c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의 못 갈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7:4). 머리는 갈멜산 갈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7:5). 사랑아 네가 ②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7:6). ①d네 키는 종려나무 갈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7:7).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①f네 유방은 포도송이 갈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갈고 (7:8)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7:9上).

위의 (23)[T₂₋₉]은 술람미 소녀의 노래이다. 두 연인이 번갈아 가며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과 기쁨을 노래하며 고백하는 교창(交唱)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노래에 대한 화답인 것이다. 문장 유형은 후행절의 문말어미가 감탄형 ‘-로구나’와 결합된 감탄문이다.

a와 b의 구조는 ‘-요’라는 나열형 어미에 기대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서 병행 구문을 이루고 있다. 각각의 문장은 ‘A는 B다’ 식의 구조적 은유 형식을 취했다. a의 후행절에서는 주어 ‘우리 집’이 그리고 b의 후행절에서는 주어 ‘나’가 생략되어 공범주로 실현되었다. 연결어미에 의해 두 문장이 이어질 때 반복되는 요소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a의 주어 ‘우리 집’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한다. 불가시적인 원관념이 숨어 있는 존재론적 은유인 것이다(김준오 2003). ‘백향목’과 ‘잣나무’는 목질의 단단함 때문에 값비싼 건축 자재로 취급된다. 따라서 a에서는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왕인 솔로몬의 사랑이 변함없이 견고하기를 염원하는 속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다.

b는 ‘나=수선화’와 ‘나=백합화’의 은유를 통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평범하고 수수한 여인으로 겸손하게 낮춤으로써 역으로 솔로몬을 높이며 자신의 존경과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⁷⁾ 반면에 수선화와 백합화는 서식지가 광범위하여 매우 흔한 꽃이었다. 그리고 고귀함이나 화사한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랜드 종합주석 1996).

(24)[T₃₋₂]의 ①a와 b는 청유문⁸⁾의 병행이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제안하는 문장 유형인데 청유형 종결어미 ‘-자, -세, -아/-어, -오’등이 붙어서 성립된다.⁹⁾ [T₃₋₂] 내용은 솔로몬이 술람미 소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다. ①a는 솔로몬이 자기를 기다리는 술람미 소녀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지면에 꽃이 피고 포도나무 꽃향기도 짙으니 사랑의 보금자리인 궁궐로 가자는 요청이다. b는 솔로몬이 오랫동안 떨어져서 그리워하다가 다시 만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된 것을 계절의 변화에 비유하여 표현하면

7) 술람미 소녀는 [T₈]에서 솔로몬을 ‘고벨화’에 비유했었는데, 고벨화는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꽃이다. 꽃가루와 즙은 고급 화장품으로 사용되었다.

8)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제안할 때 선택하는 문장유형이다.

9)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의 합동인데 주어가 화자 자신으로서 자기의 행동수정을 제안하거나(“나도 한 잔 먹자.”), 청자의 행동수정을 제안하는(“표 좀 빨리 팝시다.”) 경우도 있다(남기심·고영근 1998).

서 칭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②a와 b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기의 의도대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문’을 병행구문으로 택하고 있다. 솔로몬은 술람미 소녀를 ‘비둘기’에 비유하면서 “얼굴을 보게 하라”, “소리를 듣게 하라”고 노래하였다. 그 산비둘기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한 낭떠러지나 바위틈에 둥지를 튼다. 술람미 소녀를 바로 이러한 습성을 가진 산비둘기에 비유한 이유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처녀다운 정결함을 굳게 지켰기 때문이다. 영혼과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연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25)[T₄₋₂]의 ①a~c는 ‘~같고 ~같구나’의 구문을 3회 병행하고 있다. 신랑이 신부에 대해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들에 비유하여 최상의 찬사를 보냄으로써 가슴 벅찬 사랑의 희열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눈=비둘기, 머리털=길르앗 염소, 입술= 홍색실, 뺨=석류한, 목=다윗의 망대, 유방=쌍태 노루 새끼” 등처럼 신부의 신체 각 부분을 각각에 적합한 비유와 함께 마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듯한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세밀하게 묘사한 것이다. 신부의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육체 및 인격이 신랑에게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기쁨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텍스트 수용자들의 인지 공간에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다. ②는 대등적 연결어미 ‘~고’로 이어지는 병행구문을 사용하고 있다. ③은 대등적 연결어미 ‘~요’로 이어지는 병행구문을 네 번 사용하고 있다. ②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지성과 도덕적인 성품, 아름답고도 성실한 언어 습관 등을 열거하면서 칭찬하는 것이다.

③에서는 아내를 ‘동산, 우물, 샘’에 비유하면서 열거하였다. 고대 근동에서는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서 부인을 이처럼 은유적으로 나타냈다(그랜드 종합주석 1996). 동산, 우물, 샘은 모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안식과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귀중한 존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솔로몬은 세 가지 은유적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신부인 술람미

소녀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처럼 ‘잠근, 덮은, 봉한’ 등의 수식어를 제시하여 신부의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고, 그러한 소녀를 오로지 자신만이 취할 자격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6)[T₆-1]의 ①a~e는 ‘~같고 ~같구나’ 구문을 5회 병행하고 있다. “배꼽=등근 잔, 허리=백합화로 두른 밀단, 목=상아 망대, 눈=헤스본 바드랍빔 문 결의 못, 코=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머리= 갈멜산, 키=종려나무, 유방=종려나무 열매 송이, 유방=포도송, 콧김=사과 냄새, 입=좋은 포도주‘ 등처럼 은유를 통해 신부인 술라미 소녀의 머리끝에서부터 발 끝에 이르기까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관능적 묘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술라미 소녀의 정적인 아름다움을 주로 묘사했지만 여기에서는 춤을 추며 움직이는 보다 능동적인 모습을 통해 더욱 생명력 있는미를 나타낸 것이다.

②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처럼 두루뎃춤의 감탄형 종결어미 ‘~지’¹⁰⁾로 끝난 구문을 병행시키고 있다.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신랑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음을 노래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IV. 결론

성경 해석에 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문장 문법적인 틀 안에서는 언어의 표층적 특성을 정적으로 기술하기가 쉬운데,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성경 해석은 최초의 발신자와 최초의 수신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10) ‘~지’는 해라체나 하계체에 대신할 수 있는 두루뎃춤 종결어미다. 반말인데 상관적 장면에만 쓰이고 단독적인 장면에서 쓰이는 일은 없다(남기심·고영근 1998. ‘베꽃, 물음, 감탄, 시킴, 띄임’ 따위로 다 쓰인다.

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구약 『아가』에 사용된 회기와 병행구문을 통해 텍스트 발신자의 의도에 대해 보다 세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가』 외의 다른 성경의 해석도 텍스트성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텍스트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심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회기 기법을 사용했다. 수용자의 인지 구조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소녀의 사랑, 신부의 아름다움, 그리움’ 등의 지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인 것이다. 회기 기법의 특징은 3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1, 2인칭 대명사의 반복을 통해 사랑의 주체와 객체를 강조하였고, 둘째, 구상명사 반복을 통해 인지 공간의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셋째, 발화의 반복을 통해 의미 강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청유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등에 기댄 병행구문은 신부와 신랑의 간절한 기원이나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을 수용자의 인지 공간에 등가적 구조로 머무르게 하는 의미적인 효과를 얻었다.

주제어 : 아가(Aga), 회기(recurrence), 병행구문(parallelism), 텍스트성(textuality), 응결성(cohesion)

참고 문헌

고영근(1995), 『단어 · 문장 · 텍스트』, 한국문화사.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 아르케.

고영근 외, 『한국 텍스트과학의 제과제』, 역락.

김광희(2000), 「국어 화맥 조응 대명사의 장거리 결속에 대하여」, 『한

국어언문학』45집.

김유기(1999), 『텍스트 언어학적 룯기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원(석사논문).

김준오(2003), 『시론』, 삼지사.

양영희(2002), 「혼불에 나타나는 텍스트성의 갈등 양상」, 『한국언어문학』49집.

이석규 외(2001), 『텍스트 언어학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이석규(2003), 『텍스트 분석의 실제』, 역락.

이성연(2002), 「구약 요나의 결속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48집.

이은희(2000),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출판부.

이현호 외(1999), 『한국 현대 희곡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전은주(1999), 『말하기 · 듣기 교육론』, 박이정.

대한성서공회(1987), 『개역성경』.

성서교재간행(1996), 『그랜드 종합주석』 11권.

오픈성경편찬위원회(1987), 『오픈성경』.

Beaugrand, R., de & Dressler.W(1981). 김태옥 · 이현호 역(1990), 『담화텍스트 언어학입문』, 양영각.

Brinker.K(1985). 이성만 역(2004), 『텍스트언학의 이해』, 역락.

Coseriu.E(1980). 신익성 역(1995), 『텍스트 언어학』, 사회문화연구소.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